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흰눈이 기다려지는 12월이지만, 저희들은 이곳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는 크고, 작은 소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부터 약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슬람 지도자들 가운데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테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희생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에는 국지적인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연일 모든 News와 이야기의 중심이 이번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듯 새로운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눈에 생소한 모습들이 이곳, 저곳에 보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입구에도 중무장을 한 군인과 탱크가 길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학교에 있는 저희들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비상 상황을 준비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새벽에 전기 누전으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근무하는 현지 직원 두 가정도 이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어 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가운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르지만, 한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일년 이상 머무는 가운데 현지 주민이 공중기도 시간 중에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지난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저희 먼저 믿는 자들의 시선을 복잡한 세상이 아닌 천지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Chaos가 변하여 질서가 생기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빛이 이곳에 강하게 빛추어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해변 교회 성경공부에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10주 프로그램에는 시작 하기전 등록이 있었고 매주 진행의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린이가 중간에 들어 오면 적응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문턱을 낮추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번 암송한 10개의 성경 구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실제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전도를 격려한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참여하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저희가 마을을 방문하는 날이면 마을 입구부터 교회까지 저희를 아는 많은 사람들과 오랜동안 진한 인사를 나누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해변 교회가 위치한 곳은 2,500세대의 약15,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면적에 비하여 상당히 밀집된 곳입니다. 몇주 전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과 같이 교회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토요일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직접 확인하고, 마을 전체로 확대하여 가능한 많은 주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가 된 적이 없는 주민들의 문맹 퇴치, 직업 교육, 마을 도서관, 컴퓨터 교육등이 언급 되었습니다. 몇달 전에도 다른 지역의 책임자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만약 이런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 질 수만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있다면,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마을에서 제공하겠다고하여 감사까지 했습니다. 당장 사용하기에는 협소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엿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졸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 많은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곳 해변 교회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3년여 이곳을 시무하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곳을 떠나 내년 초에 도심지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약 3개월 전에 이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 주어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교인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새로 부임할 예정이던 목사님께서도 이곳을 방문한 이후 부임 여부를 아직 결정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쁜 성탄과 복된 새해를 맞이해야하는 교회가 갑작스런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어 할까 생각하면, 이곳을 올 때마다 반갑게 대해주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일로 인하여 기대하는 한가지 일은, 아무쪼록 새롭게 부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입니다. 오랜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해 왔지만 전혀 움직임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통하여 강력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지역과 교회를 위하여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 139:17)**

오랜 역사 동안 여러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곳은, 나라 전체가 동양에서 찾기 힘든 독특한 모습으로 변화해 온 것 뿐만 아니고, 작게는 일상 삶에 너무 밀접한 한 개인의 '이름' 까지도 깊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선 선조들의 배경에 따라 이들의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및 세례명이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이름의 구조나 조합과 발음마저도 불규칙적으로 되어서, 같은 나라에서 살면서도 서로 간 아주 독특한 이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 마저도 늘상 부르는 이름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행정적으로 이름이 필요한 공식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본명은 잘 모셔놓고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대신 본명외에 누구나 쉽게, 편하게, 정답게 부를 수 있는 Nickname을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 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ickname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 외의 단순한 별명이 아니고, 나이드신 어른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일상에서 아무 불편없이 사용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름 그 자체로 훌륭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의 학교에서 Computer 관련 일을 도와주는 로로, 경비를 담당하는 직직, 장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보봉과 딩동, 사무실에서 서무를 도와주는 징징과 조페, 현지어 선생님 베베, 동네 구멍가게 아줌마 네네, 식당 주인 베벵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너무도 잘 감당하는 따따 및 피부 색깔에 따라 좀더 서구화된 애플, 블랙애플, 초콜렛등으로 불리는 이름들이 있어서 아주 정겹고, 부르기가 즐겁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